

집단미술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효과

The Art Therapy in Groups' on the work Stresses and Emotional Burnouts of Social Workers for Disabled Facility

차미선, 신지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Mi-Sun Cha(ggoolmi@hanmail.net), Ji-Hyun Shin(kidedu@naver.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A시에 위치한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8명으로 연구기간은 2016년 2월 16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주 1회, 70분씩 총 13회기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치료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 그리고 4주 후에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검사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맨 휘트니 U 검정(Mann 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사전·사후·추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감소에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집단미술치료는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을 감소시켰으며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집단미술치료 |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직무스트레스 | 심리적소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effect of the art therapy in group on the work stresses and emotional burnouts of social workers for disabled facility. The subjects are the 8 members of social workers at the facility for disabled located in city A. From Feb 16, 2016 to May 31, 2016, 70 minutes per session, overall 13 therapies were given. To see the therapeutic effects, there were test of stress and burnout before, afterwards and 4 weeks later.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in group, Mann Whitney U test was done, and Wilcoxon's signed ranks test was done to see the difference afterwards. As a result, art therapy in group was effective on the work stress and burnout of social workers in disabled facility and the positive effect lasted. This results suggests a developed ways to reduce work stress and emotional burnout of social workers for disabled facility.

■ keyword : | Art Therapy in Group | Social Workers in Disabled Facility | Work Stresses | Emotional Burnout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은 정신적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적 상황과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1].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해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서 표현되는 실제적 적응행동 모두에서 유의미한 한계를 가진 장애로 특징 지워지며 18세 이전에 시작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은 지적능력이나 적응행동능력이 떨어져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2][3],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4][5].

사람은 청소년기까지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일, 결혼, 사회생활 등을 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변처리, 의사결정,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지만, 지적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6].

지역사회가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시설의 종류로는 주거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거주시설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적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이나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을 지원하는 주간보호시설로 나눌 수 있다.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사랑으로 돌봐주는 부모로서의 역할, 성인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사이에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 성인지적장애인들의 욕구와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7], 감정 표현과 목표달성을 위한 촉진자의 역할,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과 신변처리를 가르치는 교

사의 역할[8]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언어가 미숙하고 표현이 부족한 이용인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이상행동이나 돌발 상황의 대처에 대한 경험부족[9]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10]. 또한 지적장애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용인 부모와 동료사회복지사 등과의 감정적 대립이 생활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11]. 우리나라 지적장애인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신변처리와 각종 프로그램 활동, 업무 및 잡다한 서류업무를 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아[12]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 영향을 미친다[13].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상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자원이거나 능력이 자신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14]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므로, 직무상황이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15]. 우리나라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사명감이 막중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용인의 관리나 그들에 대한 책임감 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낮은 급여수준, 과도한 잡무, 직급의 수직적 관계[16] 등이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17][18],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야기 된다면 직무 불만족으로 사기저하를 보이며[19]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결근, 근무태만, 업무의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20][21].

심리적소진은 개인이나 이용시설 전체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타인과의 과도한 접촉으로 인한 감정적 차원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정서적차원에서 에너지가 고갈되어 지치고 피곤하거나 불쾌한 감정 등을 느끼면서 역기능적이고 부정적 결과를 가지게 된다[8]. 업무에 대해 지치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나 관심, 흥미 등이 상실되는[22], 증상이 점차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 이처럼 심리적소진은 오랫동안 지속된 과도한 업무로 시작되어[23] 초조, 긴장, 피로와 같은 스트레스로 발전하여 결국은 사회복지사가 심리적으로 업무와 분리될 수 있다[24]. 따라서, 평소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돌아보는 등의 적극적인

인 노력이 필요하다[25].

최근 집단미술치료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26-28]가 보고되고 있으며, 집단미술치료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감소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 이용시설의 생활재활교사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을 감소시킨 연구[11][17]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미술치료는 적절한 자기감정표현과 자기수용[29]을 가능하게 하고, 대처능력을 기르며, 심리적 안정[30]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기관리 능력 습득, 동료들 간의 지지, 공감, 감정해소 등의 대인관계기술 향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을 감소시켰다[26][31].

그러나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 혹은 가족의 양육스트레스에 관련된 집단미술치료논문은 다수 진행[32-36]되고 있지만, 부모의 노화로 성인지적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힘들어하는 부모 대신 부모역할을 하게 되는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감소를 위한 중재를 시행한 집단미술치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다양한 집단미술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 취약한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여 내면의 감정표현, 자기통찰, 자기인식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적절한 자기표현,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길러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복지현장에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심리적소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A시에 위치한 성인지적장애인 H장애인 이용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남·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016년 2월 11일에 본 연구자가 검사의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순서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심리적소진 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회복지사 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통제집단은 동일한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남·여 사회복지사 중에서 무선 할당하여 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실험집단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성별	연령	개인적 특성
A	남	42세	거친 이용인의 행동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력적으로 하기 힘들고, 사회복지사인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음.
B	여	35세	항상 바쁘고 지쳐있고, 책임감과 끊임없이 배워야 할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음.
C	여	26세	대인관계가 어렵고 상황에 떠밀려가는 느낌이 있으며, 타해를 하는 이용인들로 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낌.
D	남	30세	이용인들의 공격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과중한 업무, 야근으로 인해 힘들.
E	여	24세	혼자 회계를 담당하여 외로움을 느끼고, 이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 그들의 욕구 파악이 어렵고 적절하게 도와주지 못함.
F	남	31세	이용인들의 돌발 상황 대처 시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표현력 부족, 감정인식의 어려움, 업무능력의 부족을 느낌.
G	여	24세	이용인들의 행동통제 시 신체적으로 약함을 느끼고, 이용인들의 반복되는 소리로 인한 두통과 피로감이 있음.
H	여	23세	이용인들의 타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소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고, 반복되는 패턴의 일과 과도한 업무량에 지침.

2. 연구도구

2.1 직무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장세진[37] 등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 KOSS-S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신뢰도가 Cronbach' a = .79 로 나타난 척도이다.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7개의 하위요인과 총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부정적인 진술문으로 되어 있는 15문항(3, 5, 7, 8, 9, 10, 11, 13, 14, 16, 17, 18, 19, 20)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 = .7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구성 내용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직무요구도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 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의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의미	4	.73
직무자율성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결여 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의 수준을 의미	4	.77
관계갈등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의미	3	.87
직무불안정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 정도를 구직 기회, 고용 불안정성 등을 의미	1	-
조직체계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차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평가를 의미	5	.73
보상부적절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평가를 의미	3	.79
직장문화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 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정을 의미	4	.73

2.2 심리적소진 척도

본 연구에서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심리적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박성호[3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뢰도가 Cronbach' a = .88로 나타난 척도이다. 심리적소진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과 총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단계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부정적인 진술문으로 되어

어 있는 8문항(4, 7, 9, 12, 17, 18, 19, 21)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소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소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 =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심리적소진 척도의 하위요인 구성 내용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정서적 고갈	업무로 인해 정서적인 자원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손실되어 피로를 느끼는 것을 의미	9	.74
비인간화	직원들 관계에서 부정적, 무감정, 비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	5	.85
개인적 성취감	직원들과 업무를 수행할 때 유능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	8	.77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A시에 위치한 성인지적장애인 H 장애인 이용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남·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사회복지사 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통제집단은 동일한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남·여 사회복지사 중에서 실험집단에 참여하기로 한 대상 8명을 제외하고, 무선 할당하여 8명을 선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16년 2월 16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주 1회, 70분씩 총 13회기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 2016년 5월 31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동일하게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검사를 실시하였다. 추후검사는 사후검사 실시 4주 후인 2016년 7월 1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사후검사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감소를 위해 연구자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선행연구

[14][31][39][40]를 참조하여 미술치료전공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초기, 중기, 종결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초기단계 2회기, 중기단계 7회기, 종결단계 4회기로 나누었고,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초기단계에서는 현재 자신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영역을 탐색하고 스트레스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중기단계에서는 집단원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집단미술치료 작업 과정을 통해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되는 영역을 인식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스스로 심리적소진이 되는 부분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 종결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감소에 필요한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자각하고 욕구 해소 방법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모색하여 긍정적 자기변화를 돕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고 수정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 4]와 같다.

표 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제	활동내용	활동목표
초기 단계	1	난화	난화 그림을 이용해 이야기프로그램 이해, 만들기	라포형성
	2	빛속의 나	빛속에 서있는 나를 그리고 스트레스와 현재 나의 상황이나 감정을능력 자각, 심리적 연결하여 느낀점 찾기	소진 영역 탐색
	3	사회복지사의 긍정과 부정	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직무스트레스 탐적인 부분을 이미지화해서색, 합리적 의사소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탐색 능력 향상
중기 단계	4	평소의 나	평소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지화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자기 표현능력향상, 자기인식
	5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내면의 나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내면의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차이점을 찾아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직무자율성 파악, 직무 재량 활용성의 수준 향상
	6	내면의 나 외면의 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와 내 개인적 가 인식하는 나는 어떻게파악, 타인에 대한 다른지 지점도를 이용해 자긍정적인 영향 탐유롭게 표현해보기	성취욕구 탐색, 분노탐색
	7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과거와 현재의 통해 생각하고 상황이나 감함, 현재와 미래에 정을 클라주로 표현해보기 대한 긍정적수용	분노표출
	8	나의 분노	중이가면 바깥쪽에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분노를내면의 분노표출에게 보여지지 않는 나만의및 해소 분노를 표현해보기	감정표출

종결 단계	9	관계 속의 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을 생각하고 점도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꾸며보기	관계갈등 탐색, 대인관계 향상
	10	나의 욕구	한 손에 직무로 인해 얻었던 것을, 다른 손에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고 꾸며보기	직무부담 및 욕구 파악, 욕구 해소 방법 인식
	11	나의 정원	내가 원하는 정원을 탐색하고 나를 위한 예쁜 정원을상, 꾸며보기	개인적 성취감향고 (나의)희망 고취
	12	빛속의 나	빛속에 서있는 나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초기에 그렸던스트레스와 빛속의 나와 차이점을 찾아능력 자각 및 해소하기	대처 능력 향상
	13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미술치료 과정에서 받은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탐색하기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만들어 지지하고	자기인식 강화 및 긍정적 희망 고취

5. 자료처리

본연구의 자료처리를 위한 통계는 SPSS v.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맨 휘트니 U검정(Mann Whitney U test)으로 비교하였으며,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된 점수의 변화를 윌콕슨의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으로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성인직장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집단미술치료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각 집단의 직무스트레스와 그 하위요인의 사전점수를 비모수검정의 맨 휘트니 U검정(Mann Whitney U test)으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직무스트레스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1.634 \sim$

.000, $p > .05$). 따라서 두 집단 간 동질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검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ridman 검정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 추후점수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 사후, 추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검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검사기간별 Fridman 검정 결과

하위요인	대상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요구	실험	16.00	.92	14.87	1.55	14.50	1.06
	통제	15.12	2.29	15.37	2.06	15.37	1.76
직무자율성	실험	12.37	1.76	13.75	1.75	14.87	2.03
	통제	11.75	1.98	11.12	1.64	11.12	1.80
관계갈등	실험	9.37	.91	10.75	1.16	10.87	1.12
	통제	9.87	.99	9.75	1.58	1.00	1.19
직무불안정	실험	3.62	.51	2.62	.51	2.50	.53
	통제	2.62	.51	2.62	.51	3.00	.75
조직체계	실험	14.75	.78	16.00	.53	16.37	.51
	통제	15.75	1.28	15.37	1.30	15.50	.92
보상부적절	실험	8.87	1.80	10.00	1.60	10.62	1.30
	통제	8.87	1.55	8.50	1.41	8.50	1.19
직장문화	실험	10.00	1.19	9.12	1.24	8.50	1.19
	통제	10.37	1.59	10.50	1.77	10.12	1.35

* $p < .05$, ** $p < .01$

표 6.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윌콕스 부호순위 검정)

하위요인	집단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평균순위	순위합	사례수	평균순위	순위합	사례수		
직무요구	실험	4.25	25.50	6	2.50	2.50	1	1	-1.983
	통제	.00	.00	0	1.50	3.00	2	6	-1.414
직무자율성	실험	.00	.00	0	3.50	21.00	6	2	-2.232
	통제	2.50	10.00	4	.00	.00	0	4	-1.890
관계갈등	실험	.00	.00	0	3.00	15.00	5	3	-2.060
	통제	3.00	9.00	3	3.00	6.00	2	3	-.447
직무불안정	실험	3.00	3.00	5	.00	.00	0	3	-2.070
	통제	1.50	1.50	1	1.50	1.50	1	6	.000
조직체계	실험	.00	.00	0	4.50	36.00	8	0	-2.640
	통제	2.67	8.00	3	2.00	2.00	1	4	-1.134
보상부적절	실험	.00	.00	0	3.00	15.00	5	3	-2.041
	통제	1.50	3.00	2	.00	.00	0	6	-1.342
직장문화	실험	3.00	15.00	5	.00	.00	0	3	-2.070
	통제	4.00	12.00	3	4.00	16.00	4	1	-.378

* $p < .05$, ** $p < .01$

직무스트레스의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윌콕스의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관계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후에 대한 점수가 사전에 대한 점수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의 사전-추후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윌콕스의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직무자율성, 직장문화는 추후 직무자율성에 대한 점수가 사후 직무자율성에 대한 점수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문화는 사후-추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7.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사후-추후 평균 및 표준편차 (윌콕스 부호순위 검정)

하위요인	집단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평균순위	순위합	사례수	평균순위	순위합	사례수		
직무요구	실험	2.25	4.50	2	1.50	1.50	1	5	-.816
	통제	1.50	1.50	1	1.50	1.50	1	6	.000
직무자율성	실험	.00	.00	0	3.00	15.00	5	3	-2.060
	통제	1.50	1.50	1	1.50	1.50	1	6	.000
관계갈등	실험	.00	.00	0	1.00	1.00	1	7	-1.000
	통제	3.50	7.00	2	3.50	14.00	4	2	-.816
직무불안정	실험	1.00	1.00	1	.00	.00	0	7	-1.000
	통제	.00	.00	0	1.50	3.00	2	6	-1.342
조직체계	실험	3.00	3.00	1	3.00	12.00	4	3	-1.342
	통제	4.00	12.00	3	4.00	16.00	4	1	-.378
보상부적절	실험	.00	.00	0	2.00	6.00	3	5	-1.633
	통제	1.50	1.50	1	1.50	1.50	1	6	.000
직장문화	실험	3.00	15.00	5	.00	.00	0	3	-2.236
	통제	3.00	12.00	4	3.00	3.00	1	3	-1.342

$p < .05$

2. 집단미술치료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각 집단의 심리적소진과 그 하위요인의 사전점수를 비모수검정의 맨 휘트니 U검정(Mann Whitney U test)으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심리적소진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 -1.376 \sim -0.850$, $p > .05$). 따라서 두 집단 간 동질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소진에 대해 검사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ridman 검정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 추후점수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검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8. 심리적소진에 대한 검사기간별 Fridman 검정 결과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동률	Z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소모	실험	30.50	2.67	37.25	2.81	25.37	3.24		
	통제	31.25	4.30	31.75	3.95	32.12	3.64		
비인간화	실험	12.12	2.41	10.25	2.05	9.37	2.26		
	통제	14.87	2.03	14.87	1.64	15.25	1.90		
개인적성취감감소	실험	22.00	2.92	24.25	2.76	25.25	1.66		
	통제	23.75	1.83	23.87	1.72	23.62	2.13		

*p<.01

심리적소진의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윌콕슨의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정서적 소모,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사후에 대한 점수가 사전에 대한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심리적소진에 대한사전-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하위요인	집단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평균 순위	사례 수	순위합	평균 순위	사례 수	순위합		
정서적 소모	실험	4.00	28.00	7	.00	.00	0	1	-2.384*
	통제	2.50	2.50	1	3.13	12.50	4	3	-1.414
비인간화	실험	4.00	28.00	7	.00	.00	0	1	-2.388*
	통제	3.50	10.50	3	3.50	10.50	3	2	.000
개인적성취감감소	실험	.00	.00	0	4.00	28.00	7	1	-2.379*
	통제	3.00	6.00	2	3.00	9.00	3	2	-.477

*p<.05

심리적소진의 사전-추후 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윌콕슨의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리적소진의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정서적 소모는, 추후 정서적 소모에 대한 점수가 사전 정서적 소모에 대한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비인간화는 추후 비인간화에 대한 점수가 사후 비인간화에 대한 점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심리적소진에 대한 사후-추후 평균 및 표준편차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하위요인	집단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Z
		평균 순위	사례 수	순위합	평균 순위	사례 수	순위합		
정서적 소모	실험	4.00	28.00	7	.00	.00	0	1	-2.388*
	통제	4.00	8.00	2	4.00	20.00	5	1	-1.134
비인간화	실험	3.00	15.00	5	.00	.00	0	3	-2.070*
	통제	2.00	2.00	1	2.67	8.00	3	4	-1.134
개인적성취감감소	실험	.00	.00	0	2.50	10.00	4	4	-1.857
	통제	2.50	7.50	3	2.50	2.50	1	4	-1.000

*p<.05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성인지적장애인은 누군가의 보호나 대변이 필수적이고 그 어떤 장애유형보다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소외를 심각하게 겪으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지적장애인의 입장에서 욕구와 정서를 이해해야한다.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와 이용인의 상호관계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41]인데, 그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할 때 동기나 의욕을 약화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42]. 따라서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이 분야의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시에 위치한 성인지적장애인 H장애인 이용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

무하고 있는 남·여 사회복지사 8명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13회기 실시하였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검사 점수를 평가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추후 검사는 사후검사 실시 4주 후에 사후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효과의 지속성 검증을 하였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 대상 8명의 직무스트레스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추후에도 그 효과가 유의미하게 지속되었다. 즉,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 추후에 실험집단 대상 8명의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관계 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는 검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위계지향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에서 열악한 임금수준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과중하고 부정적 인식 등이 부가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생기는 장기간의 피로들이 누적될 경우, 생활전반에 있어서 무기력이 나타나게 된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위가 높아진다면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이직도 끊이지 않게 되는데 이는 평생직장이라는 안정성이나 믿음이 낮아져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용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고 외부환경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고,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과 공감 및 지지를 할 수 있는 인간 중심적인 업무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이용인을 소홀히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미술치료를 통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억압되어 자신의 내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고[43], 통찰력을 길러 내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다[44]. 집단미술치료는 여러사람이 모여 서로간의 지니나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 협동의식과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을

통찰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변화를 보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게 되어 바람직한 미래상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고[45] 내적 성취감이나 자아존중감 등의 만족감을 증가시키므로[46][47], 집단미술치료는 직무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48][49]. 즉, 집단미술치료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26] 연구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사무직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연구[50]는 집단미술치료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능력의 향상에 효과[51]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집단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집단에 참가한 집단원들은 자신의 직무스트레스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되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30], 동일한 주제로 미술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며 집단원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만이 직무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편성을 경험한다[52], 집단미술치료가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지지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자신의 장점이나 능력을 부각시키는 주제일 경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미술작품을 통해 내담자가 생산적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주장들과 상통하는 것으로 고려된다[46]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집단미술치료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술치료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므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왜곡된 감정과 사고 없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53] 연구,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정신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54] 연구,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55][56] 등의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가 직무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 대상 8명의 심리적소진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추후에도 그 효과가 유의미

하게 지속되었다. 즉,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 추후에 실험집단 대상 8명의 심리적소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심리적소진 중 정서적 소모,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검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소진은 업무 과다로 정서적인 자원이 고갈 되고 사회적 지지가 없는 근무환경에서 에너지가 손실되어 피로를 느끼게 되며, 동료 또는 상사와의 갈등 등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2][19].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때 얘기치 못한 즉각적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기술을 습득할 때 유능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런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 성취감이 적어지고 심리적소진이 높아진다[9].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며 표출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무난하기 때문에[57] 비인간화를 적게 느끼는데 이는 타인으로부터 공감과 사랑,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때 심리적소진을 덜 느끼기 때문[58]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적극적으로 깊이 탐색하여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있던 심리적소진의 실체에 대해 자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능동적인 행동변화를 시도[59]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다양한 미술매체를 사용해 작업하면서 집단미술치료 활동이 심리적소진을 창조적 및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 나가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울, 분노, 불안 등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심리적소진을 감소시킨다[60]는 견해를 입증하는 것이다. 집단미술치료를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하여 심리적소진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미비해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과 암 병동 간호사,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연구와 비교해보면[14][27][28][61],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집단미술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심리적소진의 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집단미술치료가 집단원들이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심리적소진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미술매체를 사용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적극적으로 깊이 탐색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내면의 부적절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인식[52], 표출[62][63]하여 불안을 해소[43]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64]시켜 능동적인 행동변화를 시도[59]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미술치료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을 감소시키고 그 효과가 유의미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감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여러 지역과 표본의 크기를 높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험연구에서는 성인지적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사들에게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사 개인의 복지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토대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효정,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민감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 신현기역, *생의 주기별로 본 지적장애인*, 시그마프레스, 2008.

- [3] 장현순,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는 노모의 경험과 노후 삶에 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4] 오혜경,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인간연구학회*, 제11권, pp.220-235, 2006.
- [5] 조우연, 신경애, 김영이, 김은주, 전은경, 강희숙,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경험,” *재활복지학회*, 제17권, 제1호, pp.233-258, 2013.
- [6] 정하나, *성인지적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과 삶의 질에 관한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7] 홍세희, *장애인요양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8] 김상순,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업무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9] 김진주, 노재훈, 원종욱, 이신영, 장세진,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제22권, 제3호, 2010.
- [10] 윤성은, 심우찬, 윤경아, “거주시설 성인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공격행동에 대한 생활지도원의 관점과 개입 경험에 관한 함의적 질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제27권, pp.25-46, 2015.
- [11] 공정이, 권선진, 이근매, “플라쥬 집단미술치료가 생활재활교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학회*, 제4권, 제1호, pp.1-25, 2008.
- [12] 이해경, 정제엽, “재활병원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공감만족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학회*, 제33권, 제3호, pp.177-192, 2014.
- [13] 양요안,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4] 이해경, *집단미술치료가 초등교사의 심리적소진과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5] 감지현, *미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6] 김관영, 송성인, “관광서비스 종사원의 소진 현상과 대처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호, pp.103-115, 2008.
- [17] C. Cherniss, *Staff Burnout - Job Stressin the Human Service*, Stage Publications, 1980.
- [18] 차유진, “국내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380-389, 2012.
- [19] 이해경, 정제엽, “작업치료사의 소진과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요인과 관련성,”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학회*, 제55권, 제1호, pp.233-245, 2016.
- [20] 한민희,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간소화된 REBT와 심신이완 통합 프로그램의개발*,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1] 김보현, 전영희,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학회*, 제18권, 제3호, pp.683-704, 2011.
- [22] 배연남,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성격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3] 이해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251-259, 2013.
- [24] 남시권,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위논문, 2010.
- [25] 박은영, 김은주,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0호, pp.208-216, 2008.
- [26] 안선희,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학회*, 제18권, 제5호, pp.1135-1157, 2011.
- [27] 장옥점, 류의정, 송현정, “집단미술치료가 양부모

-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학회, 제21권, 제3호, pp.366-376, 2015.
- [28] 황해경, 최은영, 전종국, “집단미술치료가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학회, 제7권, 제2호, pp.325-345, 2006.
- [29] J. A. Rubin, *Child art Therapy(the 2nd edition)*, VNR, 1984.
- [30] 서주연, “여고생의 자기표현과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학회, 제5권, 제1호, pp.49-70, 2009.
- [31] 정재원, 백양희, “집단미술치료가 대학생의 자기표현과 스트레스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학회, 제31권, 제3호, pp.507-536, 2015.
- [32] 김은화, 김원, 이상열,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대처 방식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학회, 제10권, 제4호, pp.31-52, 2014.
- [33] 신현복, 이근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장애 자녀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학회, 제22권, 제1호, pp.127-157, 2015.
- [34] 안정선, 오승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장애 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학회, 제8권, 제1호, pp.21-39, 2012.
- [35] 이미자, 이규미, “긍정심리 집단 미술치료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발달지원연구학회, 제1권, 제1호, pp.123-145, 2012.
- [36] 이은혜, 최은영,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 연구,” 미술치료연구학회, 제19권, 제4호, pp.809-836, 2012.
- [37] 박성호, 상담의 직무환경에서의 위험요소와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38] 장세진, 고상백, 강동목,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정진주, 조정진, 손미아, 채창호, 김정원,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한국산업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한산업의학지, 제17권, 제4호, 2005.
- [39] 홍은미, 이근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장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학회, 제6권, 제3호, pp.213-231, 2010.
- [40] 이경미, 장애형제를 둔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1] 박숙경, 김용득, “지적장애 이용자와 실친가의 관계에 관한 인식 유형,” 한국사회복지학회, 제2권, 제1호 pp.367-389, 2010.
- [42] 신혜영,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영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43] 최선남, 김갑숙, 전종국, 집단미술치료, 학지사, 2007.
- [44] 임미은, 김갑숙,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스트레스 및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학회, 제19권, 제5호, pp.1133-1153, 2012.
- [45] 최영희, 이미옥,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학회, 제11권, 제2호, pp.211-229, 2004.
- [46] 김동연, 이성희, “결손가정 아동의 자긍심 강화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학회, 제4권, 제1호, pp.1-24, 1997.
- [47] 최외선, 전미향,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존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학회, 제5권, 제1호, pp.75-90, 1998.
- [48] 윤은정, 미술기법을 적용한 집단상담이 자기표현력이 낮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9] 이명희,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 부모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0] 안원주,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사

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1] 이승정, *집단미술치료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52] 김태선, 이지연, “집단미술치료가 대학생의 자기격려와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학회, 제20권, 제3호, pp.547-567, 2013.

[53] 최영희, *소조활동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54] 윤현주, *플라쥬에 의한 미술치료가 정신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5] 이은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6] 김우식,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57] 박현진, *자아탄력성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58] 홍준호, *상담자의 자아강도와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59] 임지향, 안윤지, 신지현, “물입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학회, 제54권, 제3호, pp.427-448, 2015.

[60] 김동연, 문혜숙, “집단미술치료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학회, 제6권, 제1호, pp.207-244, 1999.

[61] 신현자, 최은영, 공마리아, “지지적 집단미술치료가 시민단체(NGO) 활동가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학회, 제18권, 제1호, pp.129-151, 2011.

[62] 옥금자, *집단미술치료 방법론, 이론과 실제 I*, 하나의학사, 2007a.

[63] 옥금자, *집단미술치료 방법론, 이론과 실제 II*, 하나의학사, 2007b.

[64] 정재원, 김갑숙,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학회, 제17권, 제5호, pp.1125-1142, 2010.

저 자 소 개

차 미 선(Mi-Sun Cha) 정회원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전공 석사
- 2014년 9월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미술치료, 가족복지 및 상담, 장애인교육 및 복지

신 지 현(Ji-Hyun Shin) 정회원



- 2000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아동심리) 석사
- 2002년 8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미술치료전공 석사
- 200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아동교육)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미술치료, 아동 교육 및 복지